

화순, 농업 성장 잠재력·경쟁력 강화 나선다

스마트·특화작목·기후변화·인재 '4대 전략 사업' 집중 추진 복숭아 틈새 작목 육성...패션프루트 등 아열대 작물 도입도

화순군이 농업·농촌의 성장 잠재력·경쟁력, 농업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고 농촌진흥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예산 70억원을 편성해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스마트 팜 확대, 특화작목 육성, 기후변화 대응 안전 농산물 생산, 농업 인재 양성을 4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다.

2014년부터 시설 원예 파프리카·토마토·딸기 농장 66곳(57ha)에 스마트 팜을 조성해 규모 면에서 전남 중심지역으로 자리 잡은 화순군은 스마트 팜을 확대하고, 특화작목 경쟁력 키우기에 힘쓰는다는 계획이다.

시설 원예 농가는 스마트 팜 도입 후 인실 관리 시간과 노동력 50% 절감, 수확량 18% 증가, 관행 재배 대비 작업 편리성 4배 향상, 농업 소득 증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는 축산과 노지 작물도 스마트 팜 영역을 확대해 한우·젖소 번식 효율 향상, 노지 스마트 관개 시스템 보급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은 복숭아를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화순 복숭아의 재배면적은 235ha로 전남 최대 규모다.

2022년까지 7억여원을 투입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품종 개선, 친환경 생력 재배 기술 확산, 공동 선별 기반을 구축한다. 2025년까지 전남 최고 품

질, 2030년까지 전국 최고 브랜드 작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미래 화순군을 대표할 작목 발굴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부터 '1읍·면 1특새 소득 작목 육성사업'을 전개해 13개 읍·면에 살구, 단호박 등 10개 작목을 도입했다.

앞으로 경영분석, 소비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순형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미래 소득 작목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농업 정착, 농산물 안전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으로 환경 이슈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최근에는 아열대작목 도입과 재배 규모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9년부터 2년간 패션프루트를 도입, 재배지 1.5ha를 조성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배기술 실증작업 중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간 4억여 원을 투입해 수출규격에 맞는 고품질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아스파라거스 글로벌 GAP 인증을 획득해 수출국을 일본에서 미국, 유럽으로 확대하고 수출 작목으로 육성한다.

2008년 개설해 올해 14기를 맞은 농업인대학,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온라인 마케팅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 농업인 육성, 귀농인 유치 지원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에 있는 스마트 팜 농가에서 한 농부가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4대 전략 사업 추진 내용	
스마트 팜	파프리카·토마토·딸기 농장 등 57ha 조성 노동력 50% 절감·수확량 18% 증가 관행 재배 대비 작업 편리성 4배 향상
특화작목	·복숭아 재배 면적 235ha '전남 최대'
기후변화	'아열대 작물' 패션프루트 재배기술 실증작업 중 내년까지 수출용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인재	농업인대학·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온라인 마케팅 등 교육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육성·귀농인 유치 지원 사업

사업 등을 통해 미래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진흥사업은 농업 발전을 위한 '씨앗 사업'으로 10년 전과 비교

해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스마트 팜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치유, 가공 등 융·복합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청자에 또 매료 대한민국 수공예 문화상품대전 강진 업체 올해도 금상 수상

강진군은 '2021년 대한민국 수공예 문화상품 공모대전'에서 강진청자디자인연구소 강광목 대표의 작품(사진)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진지역의 청자업체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모대전은 (사)한국수공예진흥회가 주최·주관하고 광주광역시 등이 후원했다.

금상작인 강광목 대표의 작품 '휴·과유불급(休·過猶不及)'은 계영배(戒盈杯)에 담겨있는 절제된 음주문화를 청자를 통해 즐기자는 것을 표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토우 김우성 대표가 '청자 연리문 금채 대기'로 역시 금상을 수상했다. 금상작 상금은 1000만원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청자만의 고유성과 문화 자부심의 명맥을 이어가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 에코산단 산업용지 100% 분양

입주 예정 25곳 등 2~3년 내 100개 업체 본격 가동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이하 에코산단) 산업시설 용지가 100% 분양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에코산단은 담양읍 삼관리와 금성면 원천리 일원에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담양군, 한국투자증권, 현대엔지니어링 등 6개사가 출자해 개발했으며 2014년 착공해 4년 간의 조성 공사를 거쳐 2017년 12월 준공 후 본격적인 기업 유치가 돌입했다.

2019년 말까지 분양실적이 60%대로, 관리기본 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추가 등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했고, 사업시행사인 담양그린개발㈜와 함께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업용지 100% 분양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담양군은 밝혔다.

에코산단은 58만㎡ 규모의 산단으로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자동차부품, 금속과 식품가공업체 등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만을 유치했다.

75개 기업이 입주했고, 앞으로 25개 기업이 추가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2~3년 안에는 100개 업체가 본격 가동,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에코산단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양기업의 입주가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입주 시 예로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노영진 기자 nyc@kwangju.co.kr

나주사랑상품권 율 판매액 500억 돌파

1000억 목표 '이상무'...10% 할인 5월까지 연장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의 올해 판매액이 5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나주시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나주사랑상품권 판매액 500억원은 2007년 상품권 첫 발행 이후 상반기 역대 최고액이며 지난 한 해 판매고 836억원의 절반을 뛰어넘는 액수다.

이는 지난달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과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등 2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된 효과로 풀이된다.

상품권 구매 시 액면가 10% 할인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한 것도 판매 신장에 기여했다.

시는 상품권 연간 10% 할인 판매제 유지를 위한 국회 확보 노력과 시청,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상품권 이용 생활화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기로 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 54개소에서 월 70만원 한도 내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음식점·마트·주유소·약국·병원 등 나주지역 지정 가맹점 31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이 상품권을 보완해 지난해 9월 출시한 카드상품권은 전용 앱(CHAK)을 통해서 구매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상품권 유통량 급증에 따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철저한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목표로 한 1000억원 판



농협 창구를 찾은 나주시민이 중이형 나주사랑상품권을 받고 있다. <나주시 제공>

매 달성을 위해 구매 할인을 유지하고 홍보,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